수입차 전문 수리
불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그랜드자동차 운전전문학원
대표원장 이장섭
Mobile. 010-4652-7327
Tel. 063-717-4444 Fax. 063-274-4445
E-mail. leewww2@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14(상림동 60)

2025년 2월 5일(수) 제 3028호

군산의료원 급성기진료시설 및 감염병전담병동 준공식 4일 군산의료원에서 열린 군산의료원 급성기진료시설 준공식에 김관영도지사와 문승우 도의회 의장, 군산시장,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시설을 둘러 보고 있다. <사진=전북도>

군산의료원 급성기진료시설 및 감염병전담병동 준공 '운영'

410억 투입, 급성기 진료 및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

전북자치도는 군산의료원의 급성기진료시설과 감염병전담병동 확충을 완료하며 지역 공공의료 혁신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도는 4일 군산의료원에서 김관영 도지사, 문승우 도의장, 임승식 농업복지환경위원장, 강임준 군산시장, 전북병원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의료원 급성기진료시설 및 감염병전담병동 준공식'을 개최했다.

군산의료원 급성기진료시설 확충사업은 2023년 4월 착공해 국·도비 총 410억원이 투입됐으며, 준공식을 열고 본격 운영 들어간다. 주요 시설로는 ▲1층 응급의료센터, 영상의학촬영실 ▲2층 중환자실, 응급검사·병리과 ▲3층 수술실 ▲4~5층 입원병동 ▲6층 감염병전담병동 등으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9,354㎡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응급의료센터, 수술실, 급성기 입원병동(84병상), 중환자실(20병상)을 새로 설치해 지역 내 급성기 의료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감염병전담병동(7병상)과 감염분만수술실(1실)을 추가로 설치해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기존 본관 2~3층 시설을 2027년까지 리모델링해 진료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道, 기후테크산업 키워 성장 동력으로

전북자치도, 기후테크 경진대회·현장 실증 등 적극 육성
스타트업 육성 강화로 경제·환경·일자리 확보 전략

기후테크산업이 지역 혁신 성장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탄소중립 실현과 함께 녹색 기반의 미래먹거리 창출 잠재력이 높기 때문이다.

전북자치도는 4일 기후테크 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한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 하겠다고 밝혔다. 기후테크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이 분야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전략이다.

기후테크는 기후와 기술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범위의 기술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탈탄소 분야 전체를 지칭하는 핵심키워드로 우리나라 기후테크산업의 5대 핵심 분야로는 △클린테크(재생에너지) △카본테크(탄소포집) △에코테크(자원순환) △푸드테크(대체식품) △지오테크(우주기상) 등이 꼽힌다.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계 각국의 기후테크 육성 의지는 뚜렷하다. 민간 투자를 중심으로한 기술의 진보도 높은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딜로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기후 시장은 2022~2032년 연평균 24.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해 제4차 전체회의에서 145조원 투자를 핵심으로 한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2050탄소중립 추구와 동시에 유니콘기업 10개, 신규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밑그림이다.

도 역시 기후테크 산업을 지역 혁신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정책 고도화에 나섰다. 기후테크 산업 인프라 확산과 함께 기술의 주체인 스타트업 육성 강화, 테스트베드 조성 등을 동시에 추진한다. 현재 도는 기후테크 산업의 핵심인 지속가능 에너지, 배터리, 모빌리티 인프라를 두루 갖춘 지역으로, 녹색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지속가능 에너지 분야의 경우 새만금에 30조를 투입해 7GW급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스마트 전력망과 수소 등 에너지산업 테스트베드로서의 입지도 다지고 있다.

배터리 분야는 지역 기후테크 산업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2023년 새만금이 국가이차전지특화단지로 선정된데다 약 14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도 이뤄졌다. 모빌리티 분야는 지속가능 에너지·배터리 분야와 밀접하게 엇닿아 있다. 이들 산업을 바탕으로 한 수소와 에너지 저장장치(ESS), 폐배터리 등이 현재의 자동차·조선 산업을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으로 전환·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바이오, 인공지능(AI), 로봇 등을 포괄한 푸드테크 분야에도 투자와 육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도 강화한다. 성장이 기대되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중·대기업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도는 민선8기 동안 조성하는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책과 연계할 예정이다. 기후테크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네트워킹 강화 역시 추진하며 SWITCH라는 명칭으로 기후테크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브랜딩한다. 이밖에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등 실증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나간다.

/최준호 기자

道, 첨단新산업 생태계 구축 위해 핵심 과제 역점 추진

바이오·이차전지·미래차 집중 육성…첨단산업 허브 도약
주력산업 고도화 및 제조업 디지털전환 연계, 혁신 완성

전북자치도는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新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글로벌 생명경제 혁신거점 도약!'을 목표로 3개 핵심 과제, 13대 실행과제를 역점 추진한다.

특히, 그린바이오 기반의 강점을 토대로 바이오산업 기반 강화,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고도화, 첨단소재 기반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선정 추진, 미래차 산업 기반 구축 등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매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작년 바이오특화단지 공모 과정을 통해 확인한 전북도만의 강점 분야와 바이오 자산을 기반으로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먼저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5개년)을 수립해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 기업 맞춤형 지원 및 첨단 바이오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해 도내기업 기술력 향상 및 바이오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바이오 산업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인프라 강화를 위해 첨단바이오 R&D 지원과 연구개발특구를 확대하고, 전북 R&D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지역 주도형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한다. 농식품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메타버스 기반 기술실증과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중심의 연구인프라 구축, 핵심인력양성, 기업지원을 통해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및 디지털트윈기반 사용후배터리 재자원화 최적화 센터 설립을 본격화해 새만금 특화분야(광물가공·리싸이클링) 초격차 기술 확보 기반을 확보하고, 차세대 반도체 로드맵을 수립해 전북특화형 반도체산업 육성의 체계를 구축한다

에너지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산업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 수립, RE100 참여기업 지원 종합계획수립 등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에너지 특화지역계획 수립 및 특화지역 지정 신청,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군산 해상풍력 단지 조성 지속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및 방위산업 육성을 통해 전북만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친환경차(전기·수소) 및 자율주행차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 첨단화 및 특화단지 지원으로 기업 성장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는 올해 예산을 증액해 제조현장 디지털화 전환으로 전북의 산업혁신을 가속화한다.

/김은지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2월 5일 수요일

道,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선정

도-익산시, 펫 모빌리티·애니라운지 조성 등 기반 및 프로그램 개발…총사업비 20억 투입

전북자치도와 익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사업'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익산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관광 환경을 구축하며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반려동물과 동반 여행이 가능한 관광 기반과 프로그램을 구축해 신규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생활 인구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 사업에는 총 20억(국비 10억, 지방비 10억)이 투입되며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진행된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 도와 익산시는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뒤 함라 한옥체험단지에서 진행된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특히 '다다익멍 익산(누릴수록 더 행복한 반려동물 치유 관광도시)' 사업명으로 내세워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도전 끝에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와 체계적인 추진 계획을 인정받아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앞으로 도와 익산시는 ▲반려동물 특화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수용태세 확립(펫 모빌리티, 애니라운지 조성, 가이드북 제작, 반려친화시민 만들기 등) ▲확산발전 전략(반려동물 익산 활성화 방안 연구, 다다익멍 추진단 운영, 애니칼리지 운영, 홍보마케팅과 협력 거버넌스 조성)등 의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관광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도의회 탄소중립특위, 탄소중립 실행 목표 공유

익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성공적 운영 위한 방안 모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익산4)는 4일 도교육청 과학교육원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전주시의 운영 사례를 참고해 개소를 앞둔 익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서는 김형훈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이 '익산시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주제로 익산시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현황을 설명한 뒤 지역 내 실천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남정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 현황 및 이슈'를 주제로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상의 한계를 분석하고 검토 사항을 살폈다.

이어서 진행된 지정 토론에서는 좌장인 한정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김진규 익산시의원, 이승한 전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이진홍 희망연대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지역별 탄소중립 정책 실행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

한 위원장은 "전북자치도가 탄소중립 정책 실행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북연구원, '임무중심 R&D로 미래 혁신 지향' 제언

총수출액 최대 448억 달러 감소 전망…오상록 한국과기원장, 신 과학기술 R&D 모델 제시

우리나라 과학기술 공공-민간 역량결집을 위해 임무지향 R&D 혁신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4일 오전 전북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새로운 길: 임무중심 R&D'를 주제로 '전북 백년포럼' 제25강을 개최했다.

기술패권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과학기술 공공-민간 역량결집을 위해 임무지향 R&D 혁신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미래 신산업 육성에 힘써 온 전북은 대학, 혁신기관, 연구기관 등 다양한 혁신자산을 연결한 생태계 소프트웨어가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4일 오전 전북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새로운 길: 임무중심 R&D'를 주제로 '전북 백년포럼' 제25강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은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지정학적 갈등 확대로 과학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며 트럼프 2.0 시대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되면서 총수출액 최대 448억 달러 감소가 전망되는 등 국내 타격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또한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 요소를 넘어 국제 협상의 핵심 카드라며 우리나라의 미래 협상력 제고를 위해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 원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공공-민간 역량결집의 키워드로 임무지향 혁신정책을 들며 이를 위한 과학기술 R&D 모델로 '임무중심 R&D'를 제시했다. 정부가 명확한 임무 설정, 부문별 협력 조정, 민간 역량 동원 등 역할을 수행하는 임무중심 R&D의 응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민간 산업 생태계의 근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의 과학기술 혁신생태계에 대해서는 전북이 탄소, 바이오, 수소, 식품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 힘써왔다며 전북이 가진 대학, 혁신기관, 연구기관 등 다양한 혁신자산을 연결한 생태계 소프트웨어가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이남호 원장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을 비롯한 전북 소재 혁신기관이 상호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전북의 과학기술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는데 전북연구원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관 기자

윤준병 의원,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개선법' 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공익직불금 지급 제외 농외소득 기준을 현행 5천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자로 개선하기 위한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개선법'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기준의 하나인 농외소득 기준이 16년째 동일한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익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등에서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제도 도입 이후 가구 연평균 소득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23년 기준 연평균 가구소득은 7천185만 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외소득 기준은 16년째 동결돼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현재 가구당 연평균 소득은 제도 도입 당시의 2배에 달하는 등 현실과 제도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신영대 의원,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적극 검토해야"

'K 배터리 퀀텀점프를 위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서 재정 직접지원 필요성 등 논의

신영대 의원

국회 이차전지 포럼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 간담회의실에서 'K 배터리 퀀텀점프를 위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Direct Pay) 도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법인세 감면 중심의 재정지원에서 벗어나 세액을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환급하는 '직접환급제' 도입 및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직접지원의 필요성과 산업 특성과 정책 목표를 고려한 최적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직접환급제란 기업이 투자한 세액공제액을 영업이익이나 손실과 관계없이 현금으로 환급받는 제도다. 기업이 납부할 세액보다 공제액이 크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미국의 IRA 직접환급, 미사용 공제액 양도와 유럽의 매칭보조금 등 현재 해외 주요국에서 시행 중이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김승태 실장과 법무법인 박지웅 율촌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김문건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 과장, 박재정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과장,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이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조사관,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 이상수 LG에너지솔루션 담당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 이차전지 배터리 산업은 기술력과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책적 지원이 부족해 경쟁국들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적시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접환급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도소방본부, 공기호흡기 용기 검사 업무 통합 시행

전북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가 행정 효율성과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공기호흡기 용기 검사 업무를 통합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전북자치도의 '일 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존에 도내 15개 소방서가 개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던 공기호흡기 용기 검사를 하나의 입찰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각 소방서 담당자와 현장 대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확보된 시간을 훈련과 역량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기호흡기 용기는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로, 관련 법령(고압가스법,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위생 검사가 요구된다.

2024년 말 기준, 전북자치도소방본부가 보유한 공기호흡기 용기는 총 6천440개(공기호흡기 6천65개, 스쿠버 용기 375개)이며, 이번 통합 운영으로 검사 이력 관리의 정확성과 유지·관리의 체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지 기자

전주시, '땅굴형 완산벙커' 문화관광시설로 개방

52년 만에 문화관광시설로 탈바꿈…새로운 전주 관광거점 기대

지난 1973년 땅굴형 방공호로 조성됐지만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던 전주시 완산동 완산벙커가 52년 만에 문화관광시설로 탈바꿈돼 관람객을 맞이하게 됐다.

전주시는 4일 완산벙커(완산구 완산5길 70)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장, 인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관광시설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의 개관식을 가졌다.

완산동 용머리 풍물패의 축하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개관식은 사업 추진 경과보고, 개관 기념사 및 축사, 제막식, 시설 라운딩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완산벙커는 복도에 여러 방이 연결된 개미굴 형태로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구조적 가치를 가진 특성을 살려 '폐쇄된 완산벙커와 연결된 다중우주를 관광객이 탐험한다'는 주제로 LED와 거울을 활용한 '차원의 문' 등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10개의 콘텐츠룸과 무인카페, 기념품판매점으로 구성됐다.

완산벙커는 전주시가 직영하며,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일이다.

입장료는 ▲성인(19세 이상)=1만 원 ▲청소년(13세~18세)=8000원 ▲어린이(4세~12세)=5000원이며, 전주시민과 20인 이상 단체관람객은 2000원 할인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다.

시는 개관을 기념해 입장권 1매 구입시 동반 1명을 무료로 추가 입장시키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 추가 입장은 구매한 입장권 금액과 동일하거나 낮은 가격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완산벙커가 완산칠봉 산기슭에 위치한 방공호라는 시설 특성으로 방문이 불편한 곳에 위치한 만큼 시민과 방문객을 위한 접근성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는 완산벙커 부설주차장을 건립하고, 주변 완산초 인근 임시 공영주차장의 규모를 확대했다. 또, 전주천 노상주차장 신설 등을 통해 주차환경을 개선했다.

시는 완산벙커가 문을 열면서 기존 전주 한옥마을 중심의 전주관광 외연이 풍남문과 남부시장을 지나 전주천 너머 완산벙커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간인 녹두관·파랑새관, 현재 조성중인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등 구도심 전역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는 4일 완산벙커(완산구 완산5길 70)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장, 인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관광시설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의 개관식을 가졌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는 인근에 조성중인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와 더불어 전주의 정체성을 반영한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 완산공원 명소화 사업과 연계한 구도심의 신성장 거점이자 체류형 관광의 새로운 축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주가 가진 매력과 가치를 빛나게 해줄 관광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2025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이웃사랑·기부문화 확산 위한 특별회비 전달식 열려

전주시는 4일 기부문화 확산과 적십자 회비 모금을 독려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2025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특별회비 전달식은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한규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장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은 "적십자 회비는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대한적십자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전주시도 나눔 문화 확산에 힘을 모아 모두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한규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사무처장은 적십자 감사패와 특별회원증을 전주시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특별회비를 포함한 회비 모금액은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 덕진구,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덕진' 실현 총력

신년 브리핑서 열린행정·복지행정·안전행정·민생행정 2025년 4대 추진목표 제시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심규문)가 올 한 해 시민과 공감하며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해 행복한 덕진구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안전하고 따듯한 덕진구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심규문 덕진구청장은 4일 덕진구청 신년 브리핑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덕진'을 목표로 한 2025년도 구정 운영 4대 추진목표를 제시했다.

4대 추진 목표는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행정' ▲희망을 나누는 따뜻한 '복지행정' ▲시민이 살기좋은 '안전행정' ▲온기를 불어넣는 상생하는 '민생행정' 등이다.

먼저 구는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 행정 추진을 위해 시민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고충 민원 및 시민불편 사항 신속 접수·처리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금암동 통합 임시주민센터 개청 ▲모바일 신분증 스캐너 보급 ▲고령층을 위한 큰 글씨 고지서 제작 발송 ▲부동산취득세 감면신청 유의사항 간편 문자 안내 서비스 추진 ▲지방세 납부 편의 시스템 발굴·도입 및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 운영 등을 추진한다.

구는 또 희망을 나누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목표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및 촘촘한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는 생활밀착형 안전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청정 덕진을 만드는 데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구는 선제적 재난·재해 대비를 통한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개선 및 안전 점검, 편리한 교통·가로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공원 정비 및 하천 환경개선을 추진해 도심 속 녹색 여가 공간을 만들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청소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끝으로 구는 지역민과 상생하는 공동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적극 동참하고, 저소득 및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는 등 민생행정 실현에 집중키로 했다.

심규문 덕진구청장은 "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행복한 덕진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중대재해 '관리감독자 교육' 본격화

전북자치도는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전북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 제1기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도내 행정기관 및 사업장에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84명이 참석해 실무 중심의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제조업 및 건설업 중심의 기존 안전보건 위탁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기관에 특화된 전문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형 강의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현장에서 직접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인력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현업 근로자가 속한 부서의 장, 팀장, 실무자 등이 관리감독자로 지정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 ▲응급처치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방안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사고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부주의한 업무 방식에서 자주 발생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관리감독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안전한 일터 조성에 앞장서 산업재해 예방의 초석이 돼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민,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 지원 받는다

검진 결과 C형간염 항체 양성자에게 확진검사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1회 전액 지원

올해부터 매년 56세가 되는 전주시민은 국가건강검진시 C형 간염 항체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2025년 새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진 결과 C형간염 항체 양성자에게 확진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필요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초 1회에 한해 전액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C형간염은 C형간염바이러스에 감염돼 간에 염증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급성간염의 54~86%가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건강검진에 새롭게 도입된 C형간염 항체검사는 과거의 감염 이력이나 현재 감염 가능성을 확인하는 선별검사로,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확진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가 필요하다.

C형간염 확진검사 지원 대상은 56세(올해 기준 1969년 출생자)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자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주시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C형간염 환자 중 일부는 만성 간염,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위험도는 높아진다"면서 "하지만 치료제가 있어 완치가 가능한 질병인 만큼 확진검사비 지원을 통해 C형간염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평화사회복지관, 전주시복지재단에 1백만원 기부

평화사회복지관(관장 전길배)은 4일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에 추운 겨울을 보내는 위기고립가구를 돕기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부했다.

평화사회복지관은 현재 1인 가구 등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전주함께라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운 겨울 무인카페를 이용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보며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

특히 올해로 개관 32주년을 맞은 평화사회복지관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직원들과 뜻을 모았으며, 이번 기부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전주시복지재단의 '백만천사' 기부에 참여하게 됐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전주함께라면' 사업을 통해 발굴된 위기고립가구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은 "평화사회복지관의 개관 32주년을 축하드리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전길배 관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감사를 전했다.

한편 전주시복지재단은 어려움이 있는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모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도, '생활속 안전 지키자' 캠페인 전개

안전점검의 날 맞아 다중이용시설 안전수칙 행동요령 집중 홍보

전북자치도가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익산시, 익산소방서, 한국철도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민간안전단체 등과 함께 도민 안전문화확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호남 최대 철도망을 갖추고 하루 2만여 명이 이용하는 익산역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마련됐다.

캠페인에서는 익산역 내 화재 및 에스컬레이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과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홍보 활동이 병행됐다. 기차역과 전통시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인 만큼 사고 발생 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 활동으로 '365일 도민 모두가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포함해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서울, 전남과 함께 '2024년 안전점검의 날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 민관 협력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전주시는 올해도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와 함께 민관 협력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조손가정, 장애인가구, 아동가구 등 저소득 주거취약계층까지 살피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올해 추진되는 주요 주거복지사업은 ▲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제공 ▲긴급 주거생활 유지지원사업 ▲희망홀씨 순환형 임대주택운영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 ▲연탄사용가구 주거실태조사와 연계 서비스 ▲간단, 신속처리 집수리기동대 등이다.

특히 시와 센터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전주지역 연탄사용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에 나서고, 이를 연계한 '탄소 중립 주택난방 플랫폼'을 확장 운영키로 했다.

또, '집수리기동대' 사업을 통해 센터 주변 원도심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간단하고 신속한 집수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와 센터는 전주시민 대상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교육 및 무료 법률상담소'를 통해 전주시민 모두의 보편적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주거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전주시민은 전화(063-281-0160)로 문의하거나, 센터 누리집(www.jjhousewell.co.kr)에서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영태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2월 5일 수요일

道, 청년 어업인 키운다…수산업 경영인 모집

청·장년층 수산업 경영인 발굴 지원…어업인 후계자 28명·우수경영인 6명 선발

최대 7억 융자·경영 기반 마련 혜택 제공…28일까지 도 수산기술연구소에 신청

전북자치도가 미래 수산업을 이끌어 갈 청·장년층을 발굴하고 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 수산업 경영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업을 시작하려는 청년과 기존 어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며 어업인 후계자 28명과 우수경영인 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이달 말까지이며 선발된 인원에게는 어업 기반 마련을 위한 금융 지원과 맞춤형 경영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어업인 후계자'는 어업을 경영한 경험이 없거나 경력 10년 이하이며,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가 대상이다. '우수경영인'은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업을 경영했거나,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만 60세 이하의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어업인 후계자는 최대 5억(연 1.5% 금리, 5년 거치·20년 균분 상환), 우수경영인은 추가로 최대 2억(연 1% 금리, 5년 거치·10년 균분 상환)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자금은 어선 구입, 양식장 부지 확보, 수산물 가공·유통시설 신축 등 수산업 경영 기반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선발을 희망하는 자는 어업 경력, 학력 및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수산기술연구소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전병권 도 수산기술연구소장은 "청·장년층의 어업 진입을 촉진하고 우수 수산업경영인을 양성해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내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국내 최대 범부처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돌입

10개 부처 협업 국내 최대 규모 창업경진대회…문광부 콘텐츠리그 신설, 12개 예선리그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등 10개 부처가 협업해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5'가 4일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도전! K-스타트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4개 부처 협업으로 시작한 이래, 협업부처 및 예선리그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매년 평균 5,700여팀('24년 6,238팀)이 참가하는 등 유망 (예비)창업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창업아이템을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로 성장했다.

올해 개최되는 '도전! K-스타트업 2025'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부처가 협업하며, 8월까지 부처별 예선리그가 진행되고, 이후 예선리그를 통과한 (예비)창업자들이 경쟁하는 통합본선(225개팀)이 이어져 왕중왕전에 진출할

전북중기청은 국내 최대 규모의 범 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5'가 4일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30개팀을 가리게되며, 12월에는 최종 무대인 왕중왕전을 통해 올해 최고의 창업기업 10개사와 예비창업자 10개팀을 선정해 총 상금 14억원(최대 3억원), 대통령상·국무총리상 등을 시상하는 것으로 약 1년간 여정을 마무리된다.

올해는 콘텐츠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콘텐츠리그(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해 총 12개 리그로 운영하며, 이에 따라 통합본선 진출팀도 기존 210개에서 225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후속 연계지원도 강화한다.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우선선정 대상이 대상 수상팀에서 최우수상 수상팀까지 확대돼 '26년 예비창업패키지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그 외 왕중왕전 진출팀은 서류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안태용 청장은 "위기 상황일수록 과감히 도전하는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우리 지역의 많은 창업기업들과 예비창업자들의 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전! K-스타트업 2025'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 게시된 통합 공고문과 예선리그 운영 부처별 세부 모집공고를 확인해 예선리그별 접수 기간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최준호 기자

전북도, 군산농협조공법인 설립인가 완료로 14개 모든 시·군 조공법인 갖춰

전북 조공법인, 2024년 매출 6,423억원 '괄목 성과' 달성…매출 1조원 목표 농산물 통합마케팅 확대 추진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군산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군산시조공법인)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설립 인가('25.1.15.)를 받고 본격적인 업무개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북 지역의 농산물 통합마케팅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전북은 2024년까지 군산을 제외한 13개 시·군에 조공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며, 연평균 매출액 430억원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왔다. 이러한 체계적인 노력의 결실로 2024년 말에는 통합마케팅 매출액 6,423억원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통합마케팅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참여조직 취급액 대비 통합마케팅 참여비율에서 전북은 87.9%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 36.3% 대비 2배 이상 높은 실적을 보였다. 이는 조공법인을 중심으로 한 일원화된 마케팅 구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러한 성공의 주요

군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농식품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고 본격 업무개시에 돌입해 전북도 14개 모든 시군에 조공법인이 설립됐다.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의 농산물 통합마케팅은 2012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전북은 시군별로 조공법인을 중심으로 한 통합마케팅 조직을 구축하고, 농산물 유통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며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다졌다.

2025년은 전북 농산물 통합마케팅의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전북농협은 모든 시·군에 조공법인 설립을 완료한 상태에서 통합마케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농협은 매출액 1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전북이 명실상부한 농산물 통합마케팅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조공법인의 설립은 전북 지역 통합마케팅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의미를 지니며, 이를 계기로 전북이 국내 통합마케팅 선도 지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북의 성공 사례는 전국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은 농산물 통합마케팅 체계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정환 본부장은 "전북 농산물 통합마케팅의 성공적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힘차게 시작하게 돼 기쁘다"며 "전북농협은 농업소득 3천만원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최준호 기자

농관원 전북지원, 항공방제업자·기술자 대상 상반기 기술교육 실시

항공방제업 관련 규정·안전 농약사용·기체 운용 등 현장 실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농관원 전북지원)은 항공방제업자, 항공방제 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0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항공방제 기술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공방제업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실시하는 항공방제 기술교육을 최근 3년 이내 이수한 항공방제 기술자를 두어야 하고, 신규로 항공방제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도 항공방제 기술교육을 이수한 방제기술자가 있어야 영업 신고가 가능하므로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항공방제업 관련 규정, 농약의 이해와 안전한 농약사용, 항공방제 기체 운용 등 현장 실무 등이다.

교육 신청은 전자민원 시스템(www.agrin.go.kr)에서 회원가입 후 세잎큐 홈페이지(www.naqs.go.kr/safeq)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 시스템 회원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교육신청서를 내려받아 전북 농관원 지원에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13일까지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농관원 각 지원에서 9회에 걸쳐 진행되므로 교육 일정이 맞지 않거나 교육 장소가 원 거리인 경우 전국 교육일정표를 세잎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희망하는 지역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김민욱 전북지원장은 항공방제 기술교육은 항공방제 기술자가 이수해야 할 의무 교육인 만큼 적극적인 참석을 당부하면서, "항공방제 증가로 농산물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제시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NH농협손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과수 판매

사과·배·단감·떫은감 과수 4종…이달 29일까지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총국장 김용재)은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 과수4종(사과,배,단감,떫은감) 판매를 지난 3일 개시했다고 밝혔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4종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지진, 화재뿐 아니라 동상해(추위나 서리로 인한 눈꽃 피해), 일소(햇볕 데임) 피해 등 다양한 재해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농가는 추가적으로 나무손해 특약을 가입해 나무가 고사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므로 자기부담비율 유형에 따라 국가에서 보험료의 33~60%를 지원하고, 여기에 지자체에서 35~45%를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시군에 따라 0~35%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과수4종의 방재시설의 보험료 할인율이 25% 증가했고, 온풍기 할인(사과)의 신설 항목이 추가돼 농가보험료 경감에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작년에는 호우, 기록적인 폭염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과수 농가 피해가 심각했으며, 전북 내에서 과수 4종(사과,배,단감,떫은감) 품목으로 전체 82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는 전북의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의 3.7배가 농민에게 지급됐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2025년 3개 품목이 확대 돼 총 76개 품목이며, 품목별 보험가입 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춰 개시되고 있어 농가경영의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최준호 기자

적십자사봉사회 부안지구협의회, 특별회비 전달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이선홍)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부안지구협의회(회장 박영숙)가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에 써달라며 2025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안지구협의회 박영숙 회장은 "지난 한해 부안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적십자봉사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부안지구협의회는 올해도 봉사에 항상 앞장서고 나눔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부안지구협의회는 지난해 부안지진피해현장 구호활동을 비롯해 집수리 봉사, 독거 어르신 효잔치, 효도관광 등다양한 봉사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최준호 기자

새만금청, 새만금지역 폭설·한파 대비 현장 점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2월 4일 폭설과 한파로 인한 기상특보에 따라 새만금지역 내 건설현장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 대비에 돌입했다.

4일 현재 부안군은 대설경보, 군산시와 김제시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5일까지 전북 서해안권 일부 지역은 3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새만금청은 새만금지역의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폭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관리청과 협조해 남북·동서 도로, 방조제 도로, 산업단지 내 도로 등 총 97km에 걸쳐 제설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공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 국가산단 내 공사 현장과 주요 시설물은 안전조치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최준호 기자

제9대 정구현 호남지방통계청장 취임식 개최

호남지방통계청은 4일, 광주 나라키움 통합청사에서 제9대 정구현 호남지방통계청장 취임식을 개최했고, 정 청장은 첫 일정으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 후 직무를 시작했다.

정구현 신임청장은 성균관대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충남대학교에서 통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통계청 통계서비스정책관, 사회 통계기획과장, 가계수지동향과장, 농어업통계과장 등을 역임한 사회, 농업분야 통계 전문가다.

취임식에서 호남지방통계청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명품 데이터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소멸 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통계를 개발해, 통계에 기반하는 지역 정책 설계를 보편화하고 확산하는 지역통계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호남지방통계청 직원들에게는 "선배와 후배가 존경과 존중으로 원팀(One-Team)이 돼,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정읍 황토현농협 산악회, '화합의 장' 시산제 행사

정읍 황토현농협(유형기조합장) 산악회가 지난달 20일 고부면 두승산에서 시산제 행사를 진행했다.

조합원의 복지사업 일환으로 결성된 황토현농협 산악회는 현재 회원 320여명이 참여해있다. 이들은 분기마다 한번씩 산행하며 화합과 친목을 다질 계획이다. 이날 시산제엔 유형기조합장과 산악회원 120여명이 참석했다.

유형기조합장은 "안전한 산행과 더불어 산악회원 가정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교육청, 2025년 학생 3000명 해외연수 참여

국제교류수업·학생 해외연수 정책 설명회 개최… 연수 국가 20개국 이상·국제교류수업 학교 70곳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의 학생 해외연수 정책이 올해는 더욱 확대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4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도내 초·중·고등학교장 및 교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국제교류수업 및 학생 해외연수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국제교류수업 및 학생 해외연수 정책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 운영 계획을 안내했다.

올해 전북교육청은 학생 3000명에게 해외연수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도교육청 11개 프로그램에 1439명,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24개 프로그램에 1561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는 2023년 2500명, 2024년 2800명에 이어 3년 연속 확대된 것이다.

연수 국가도 20개국 이상으로 다변화한다. 특히 학생 주도형 프로그램인 '글로벌 프론티어'는 지난해 12개팀 48명으로 운영했던 것에 비해 올해는 25개팀 1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

이와 함께 국제교류수업 학교도 70개교로 확대해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한편 설명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도교육청(정책기획과-업무마당-해외연수·국제교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연수별 계획은 각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2025년도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공고

6개 권역 시험장 설치… 오는 17~21일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5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지난 4일 도교육청 누리집(www.jbe.go.kr, 알림마당)에 공고했다.

응시자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6개 권역에 시험장을 설치·운영한다.

1권역은 전주·완주·김제, 2권역은 군산, 3권역은 익산, 4권역은 정읍·고창·부안, 5권역은 남원·순창·임실, 6권역은 진안·장수·무주이며, 시험장 설치지역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진안이다.

응시원서 현장접수 기간은 오는 17일(월) 오전 9시부터 21일(금) 오후 6시까지이며, 온라인 접수는 1일 단축된 20일(목)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 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지원 가능하다.

현장 접수의 경우 초졸·장애 응시자는 14개 시·군교육지원청에 방문 접수해야 하고, 중졸·고졸 응시자는 응시 희망 지역의 6개 권역 교육지원청(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진안)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는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 누리집(https://kged.go.kr)에서 접수 가능하다.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6개 권역 중 1곳을 응시 희망지역으로 표기해야 하며, 최종학력증명서·증명사진 2매·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행계획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시험 장소는 오는 3월 21일(금) 10시 공고하고, 시험은 4월 5일(토) 치러지며 합격자는 5월 8일(목)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총 "의붓아들 폭행 사망 사건 수사 철저히 해야한다"

후속 조치 없어 사망까지… "유관기관 철저한 사안 조사 필요, 아동학대살해죄 · 아동학대치사죄 적용해야 할 것"

전북교총은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 A씨 긴급체포와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폭행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소중한 아동의 죽음을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한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학대를 통한 사망이 확인된다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지난 2013년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 2014년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으로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보호자의 학대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돼다"면서 "면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살해죄 또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호받아야 할 한 아동이 가정 내에서 폭행으로 인한 외상 뿐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심리적 불안감까지 감내해야 했을 것"이라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관심과 유관기관의 철저한 사안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생의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돼 아동학대 신고를 했으나 추후 모니터링이나 분리조치 같은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에는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아동의 안타까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고 있다.

전북교총은 "학부모의 민원이나 여론이 두려워 가정 내 학대 사례는 쉬쉬하고 만만한 학교만 물고 늘어져 정상적인 교육활동조차 왜곡하는 행태가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학대로부터 목숨까지 위협받는 아동을 보호하는데 주력해야 하며, 학교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련 부서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경찰청은 계부 A씨를 긴급체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1일 A씨는 부인이 외출한 사이 의붓아들이 평소 남의 물건을 훔쳐 이를 혼낸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의식을 잃자 응급실로 직접 후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 인도네시아 주요대학, 국제 협력 강화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방문단이 대학 간 국제협력 강화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설 연휴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주요 대학들과 기업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전북대는 인도네시아 최고 국립대학인 인도네시아 대학교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했다.

양 총장 등 방문단은 인도네시아 최고 명문 국립대학인 인도네시아대학교(UI)를 찾아 이 대학 헤리 헤르만시야(Heri Hermansyah) 총장을 접견하고, 공과대학, 경상대학, 인문사회대학을 중심으로 교환학생 교류를 통해 우수 학생들이 전북대 석·박사 과정에 입학하게 하는 등 우수인재 유치의 기반을 다졌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대기업 Pembangunan Jaya Group 산하의 사립대학인 펨방우난 자야 대학교(UPJ)에서도 이 대학 유디 사뮤디아(Yudi Samyudia) 총장을 접견하고, 경상대 및 심리학과를 중심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상호 인턴십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의 '빅5'대학 중 하나인 보고르대학교(IPB)에 방문해 농생명대 및 수의대와의 교류를 우선적으로 강화하기 했다.

지난해 11월 MOU를 체결한 앗마자야 가톨릭대학교(UAJC)에도 방문해 올 2학기부터 교환학생과 석·박사 장학금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의 명문 사립대학 비누스대학교(UBN)와는 이번 방문 기간에 MOU를 체결했다.

/최성민 기자

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2025년 전북시민대학 사업설명회' 개최

평생교육 새로운 출발, 지역 대학 함께하는 전북형 평생교육 체제… 전북 시군 대상 전북시민대학 사업 공모 실시

전북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이현웅)은 지난 4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2025년 전북시민대학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 14개 시군 및 도내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북시민대학 사업의 운영 방향과 공모 계획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북시민대학 사업은 ▲평생학습 사회 조성 ▲지역사회 성장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 ▲지역과 지역대학 간 연계·협력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학습 문화 확산을 목표로 2023년부터 도내 시군과 지역 대학이 협력,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해 힘써왔다.

올해 전북시민대학 사업 공모는 오는 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전북의 모든 지자체는 도내 지역 대학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및 전북시민대학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전북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이현웅)은 지난 4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2025년 전북시민대학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익산시 이리백제초등학교, 2025년 1호 IB 후보학교…도내 9번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익산 이리백제초등학교가 국제바칼로레아 본부(IBO)로부터 후보학교 승인을 받았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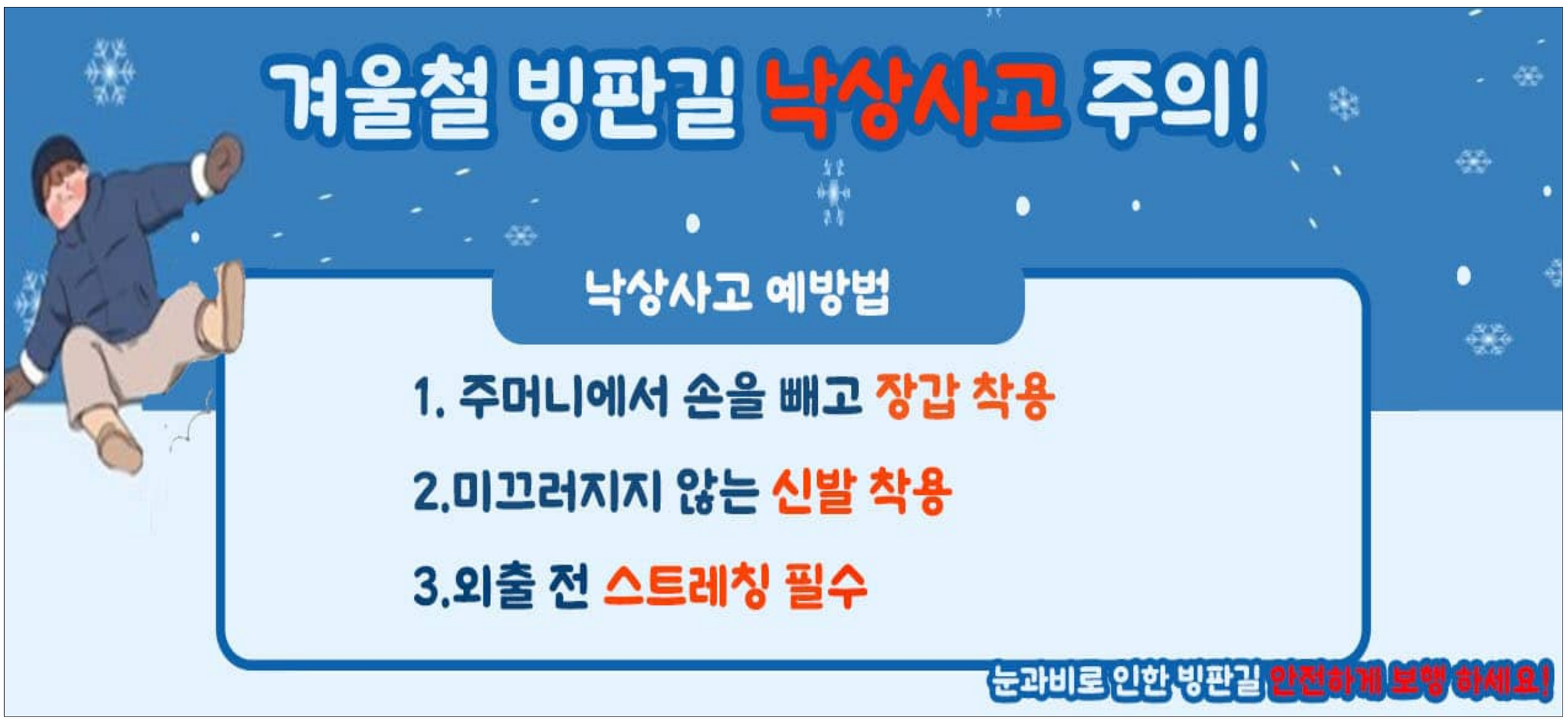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이리백제초등학교는 '스스로 선택하는 어린이, 함께 배우는 교실, 더불어 즐거운 학교'라는 목표 아래 학부모들의 큰 관심 속에 교직원들이 합심해 관심학교를 운영해 왔다.

IB 후보학교는 개념 기반 탐구학습 등 학습 모습의 변화뿐 아니라 학교 전반의 문화와 운영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IB 후보학교 승인으로 IB 월드스쿨에 한 발 더 다가선 이 학교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IB 프로그램으로 학교 교육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북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도내 IB 후보학교는 9개로 늘어났다.

전북교육청은 전북지역에서 IB 운영학교가 안정적으로 월드스쿨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IB 프로그램 설명회·IB 교사연구회 운영 ▲교원 역량 강화 연수 ▲IB 프로그램 도내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IB 후보학교 강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최성민 기자



정읍시, 치매환자 '실종예방 목걸이' 지원

고령화로 치매환자 실종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정읍시가 치매환자 보호를 위한 '실종예방 목걸이' 지원에 나섰다.

시 치매안심센터는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이름과 보호자 연락처가 각인된 '실종예방 목걸이'를 지원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 목걸이는 실종 상황 발생 시 치매환자가 신속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지원 대상은 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 치매안심센터 본소 및 분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치매안심센터는 실종예방 목걸이 지원 외에도 ▲배회인식표 제공 ▲지문등록 ▲배회감지기 보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치매환자 실종 예방에 힘쓰고 있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치매안심센터(063-539-6947~6951)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2025년 도시가스 시설 설치지원 접수

익산시가 시민의 난방비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시는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단독·다세대·연립 주택 등 약 40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용의 80% 한도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 지역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 회사인 전북에너지서비스㈜가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5월 중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 벼 대신 밀·두류·가루쌀 등

정읍시가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전략작물 직불금 신청을 오는 5월 30일까지 받는다. 벼 대신 밀, 두류, 가루쌀 등을 재배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등이다. 신청 자격은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농업인)과 작기별 전략작물 1000㎡ 이상 재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쌀값 안정을 위한 벼 재배 면적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논에 벼 대신 ▲밀 ▲두류 ▲가루쌀 ▲조사료 ▲식용 옥수수 ▲깨(들깨, 참깨) 등을 재배하면 1ha당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올해 달라진 점은 하계작물로 깨(들깨, 참깨)가 새롭게 추가됐고, 밀(동계)의 직불금 단가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사료(하계)는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됐다.

작물별 지원 단가는 ▲식량작물·조사료(동계) 50만원 ▲밀(동계) 100만원 ▲식용옥수수·깨(하계) 100만원 ▲두류·가루쌀(하계) 200만원 ▲조사료(하계) 500만원이다. 특히, 동계 밀이나 조사료를 재배하고 하계 두류나 가루쌀을 이모작하면 1ha당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동계작물 재배 농업인은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 재배 농업인은 5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농지가 여러 곳에 분산돼 있을 경우, 면적이 가장 큰 곳을 기준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산업단지 수질오염 막는다

금강동 폐수처리장 인근 사유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총 295억 투입·내년 준공 목표

익산시가 산업단지 인근 하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완충 저류시설 설치 공사에 본격 나선다.

익산시는 올해 금강동 폐수처리장 인근 시유지에 제1국가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착공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완충저류시설은 초기 강우나 화학사고 발생 시 산업단지에서 유출되는 유해화학물질과 소화수를 임시 저장한 후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유해물질이 하천으로 곧바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

앞서 시는 2022년 환경부 공모사업인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에 해당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했다.

시설은 제1국가산업단지 우수관에서부터 1.13㎞의 차집관로를 신설해 총 4,700톤의 오염수를 저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시는 총 295억 원(국비 20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익산제1국가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사업 위치도

우선 올해 1차년도 공사비 100억 원(국비 70%)을 투입해 차집시설과 차집관로 설치 공사를 추진한다. 내년에는 완충저류조 설치 후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시내 4차선 이상 주요 간선도로 정비

연간 사업비 20억 투입… 아스팔트 소성변형·노후도로 포트홀·도로 부동침하 등 문제점 개선

군산시가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시내 4차선 이상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예산 20억 원을 투입해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주요 도로 구간 정비를 실시한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2025년 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노선 도로 정비 ▲ 공단대로 등 주요 도로 재포장 사업 설계구간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시한 시내 일원 노후 불량 도로포장 상태 점검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도로에 대한 주요 민원으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그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은 ▲정지선 앞 차량 정차로 인한 소성변형 발생 ▲겨울철 제설 및 노후도로 거북등 갈라짐과 포트홀 발생 ▲굴착공사 등 부분 보수로 인한 부동침하(도로 각 부분에서 불균일한 침하가 생기는 현상) 등이었다.

이에 군산시는 기존 도로를 5cm 정도 절삭 한 후 표면에 아스콘을 덧씌워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각 도로 별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와 특징에 맞는 재료를 현장에 적용해 추후 발생할지 모를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응하기로 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몰 설 기획전, 농가 · 소비자 모두 웃었다

'마을전자상거래 설맞이 기획전' 매출 2.2억 원 달성, 전년도 기획전 매출 대비 28% 증가

익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진행한 '익산몰 마을전자상거래 기획전'이 대성공을 이뤘다.

익산시는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2주 간 열린 '마을전자상거래 설맞이 기획전'에서 7,715건을 팔며 2억 2,0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기획전 매출 1억 7,200만 원 보다 28% 늘어난 수치다.

시는 '농가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장바구니 부담을 더는 것'을 목표로 명절 특별 기획전을 준비했다.

시는 마을전자상거래 누리집인 익산몰(iksanmall.com) 회원에게 구매액의 5%를 포인트로 제공했다.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 20% 할인 쿠폰과 무료배송 혜택이 더해졌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은 사과,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인 배, 지역 특산품인 고구마가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사과·배'와 '천혜향·탐라향', '사과·배·탐라향' 등 마을전자상거래 전용 선물박스를 활용한 혼합상품도 큰 인기를 끌었다.

산지에서 직송하는 신선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농민뿐 아니라 소비자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익산몰은 올해 매출 43억원 달성을 목표로 ▲농가 대상 품질관리 교육 ▲제철 농산물 판매 기획전 ▲라이브쇼핑 ▲명절 기획전 ▲어려운 농가 돕기 기획전 등 다양한 기획 판매를 추진한다.

시는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점농가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8.3ha 농지 해제

도로·철도·하천 설치·산업 단지 개발 등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1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정읍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약 8.3ha의 농지를 해제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다.

이번 추진계획에 따라 시는 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을 정밀 전수조사한 뒤 농지법과 관련 규정을 근거로 여건 변화에 해당되는 농지를 발굴, 농림축산식품부에 타당성 검토를 요청했다. 그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8.3ha의 농지가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해제 대상지는 신태인읍 외 17개소로 도로, 철도, 하천 설치 또는 택지,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1ha 이하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이다.

시는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해제 대상 지역을 공개하고 오는 6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 시·도 농정심의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고시가 완료되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마무리된다.

시는 농업진흥지역은 국민 식량 생산을 위한 우량 농지 확보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이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번 해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참여자 모집

총 292명 모집 작년 대비 30명 증가… 최대 300만 원 지원

지난 4일 군산시는 '2025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작년에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에 261명의 미취업 청년을 선발했으며, 복지포인트 방식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비를 지급했다. 올해 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모집 인원은 292명으로 작년보다 30여 명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군산시인 미취업 청년(18~39세)으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주 근로시간 30시간 미만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세전)가 1,307,410원 이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이 없어야 한다.

해당 지원금은 교재 구입비, 면접활동비, 학원 수강료 등 구직활동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방법은 시스템에 등록된 카드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 후 시스템에서 승인 신청하거나 온라인 매장에서 사용 후 시스템에서 차감 신청하는 방식이다.

희망자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http://jbyouth.ezwel.com)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www.jb2030.or.kr) 누리집에 접속하여 참가 자격 확인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참여자 모집

총 320명 모집… 취·창업 성공 시 50만 원 추가 지원금 지급

익산시가 미취업 청년들의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한다.

익산시는 오는 28일까지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 참여자 320명을 모집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18~39세 미취업 청년(1985~2006년 출생자)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여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전북청년 함께 도전 카드'를 발급받아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포인트를 지원받는다. 포인트는 취업 목적의 학원·인터넷 강의 수강료, 자격증 접수비, 면접활동비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 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면 5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누리집(jbyouth.ezwel.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시는 다음 달 31일 최종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의회, 오는 18일 제272회 임시회 개최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오는 18일 제27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의회는 지난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72회 임시회를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군산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으며, 이중 시민편익과 복지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11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예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군산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경식 의원),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조례안」(김경식 의원), ▲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완 의원), ▲「 군산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서은식 의원), ▲「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경민 의원),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미숙 의원),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세자 의원),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한세 의원),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 「군산시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 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경봉 의원) 등이다.

또한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물론 현안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기간 5주 연장

정읍시가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기간을 5주 연장한다.

시는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기간을 오는 28일까지 5주간 연장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전 시민 10만 2647명을 대상으로 지급을 시작했으며 1월 31일 기준 97.5%인 10만 120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 시는 장기 출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아직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시민들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오는 5월 31일까지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설 명절 기간 동안 약 30억원이 소비되는 등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실질적인 보탬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김정인 기자

김관영 도지사, 김제 방문해 시정공유

주요 현안사업 질의응답 등 민생 현장서 시민들과 소통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4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김제를 방문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시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계를 넘어 더 큰 도전으로"라는 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초지일관의 자세로 민생 현장에서 도민들과의 소통기회를 마련했다. 김 도지사의 발걸음에 맞춰 시는 주요 현안과 실정을 알리기 위해 정성주 김제시장 또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4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김제를 방문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시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제시의 업무보고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김 도지사는 현재 지역현안 등을 비롯한 분야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갖은 뒤 시청대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도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도정 철학을 공유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김제시민들이 △백구 일반산업단지 조성 기반시설 정비 △새만금 명승 탐방루트 개발 및 육성 등 김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후 지평선새마루를 방문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 사회단체장들과 만나 노고를 격려하고 여러 현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김제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정 시장은 "김제를 방문한 김 도지사에 감사드리며, 도지사와 김제시민들과의 소통·공감의 자리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와 김제시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혁신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올림픽 유치 기원 퍼포먼스 펼쳐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염원, 전 직원 함께 열기 더해

부안군은 지난 3일 열린 2월 열린 공감의 날 행사에서 전 직원이 함께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실시했다.

이번 퍼포먼스는 180만 도민의 열정과 희망을 담아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염원하며 진행됐다.

군은 퍼포먼스에서 '부안군민 모두 하나 돼 성공개최 기원!', '2036 하계올림픽 유치로 전북을 세계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챌린지에 동참하며 올림픽 유치 열기를 더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는 우리 모두의 꿈이자 도전이고 부안군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세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안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반드시 성공적으로 유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AI-IOT 기반 건강관리 사업 대상자 170명 신청 받아

고창군은 허약·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습관 개선이 필요한 65세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AI-IOT 기반 건강관리사업 대상자를 오는 28일까지 선착순 170명 모집한다.

대상자는 65세이상 고창군민 170명으로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군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고창군보건소 방문보건팀(560-8761, 8734)으로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약 6개월간 비대면으로 매일 건강체크를 통해 건강위험요인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 건강검사 결과에 따라 선별지원하는 활동량계, 블루투스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등 스마트기기와 오늘건강 앱을 활용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각종 미션(걷기, 복약 등)을 수행하게 된다.

유병수 고창군보건소장은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어르신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자가건강관리 역량을 향상시켜 건강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2024년 교통문화지수 '전국 최고'

총점 87.3점, 전북 1위·전국 군단위 2위 달성

고창군민들의 운전매너와 보행안전, 군 행정의 교통정책 등이 전국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24년 교통문화지수'에서 고창군은 총점 87.3점을 기록해 전북 1위, 전국 군 단위(82개) 2위를 차지했다.

고창군은 전년도(2023년) 교통문화지수 총점 79.79점(군단위 그룹 51위)에서 무려 7.6점, 49위나 상승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번 고창군의 교통문화지수 최우수 성과는 군민들의 수준높은 안전의식과 군 행정의 노력이 시너지를 발휘했단 평가다.

실제 고창군은 지난해 음주운전금지 준수율 조사에서 100%를 기록하며 수준 높은 교통안전의식을 뽐냈다

또한, 방향지시등 점등률(97.4%),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80.1%) 역시 전국 평균(방향지시등 점등률 75.5%,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 74.6%)을 훨씬 웃돌며 안전한 교통문화정착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더해 고창군 행정 교통안전 노력도 역시 큰 박수를 받았다. 고창군은 지자체 교통안전 정책 수립 및 운영, 교통안전 부문 예산확보 노력에서 각각 군단위 그룹 1위를 차지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향상과 운전·보행행태 개선으로 교통문화지수가 크게 향상됐다"며 "어린이, 어르신 등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홍보 캠페인과 교통약자 대상 교육, 교통안전 거버넌스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지방도 개량 사업 추진…도비 79억원 투입

부안읍 서외~신흥 1.6km 구간 도로시설 개량, 내달 착공

부안군은 지방도 707호 서외~신흥 도로시설개량 1.6km 구간을 총사업비 79억원 (도비)으로 2025년 3월 사업착공 해서 2028년 12월 까지 완료할 계획으로서 금년 2월 부터 전북자치도(도로공항철도과)에서 편입토지 보상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안읍에서 부안스포츠파크를 연결하는 지방도 707호 도로시설 선형개량과 편측 보도설치로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지역주민 및 탐방객 접근성 향상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이라 말했다.

군은 전북자치도에서 지난 2023년 3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행정절차 및 관계기관 협의 완료로 이달부터 편입토지 보상과 오는 3월 사업에 착공해 오는 2028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1.6km 도로선형 개량과 차선폭 3.5m, 편측인도 2m 신설해 지역주민 및 탐방객 교통편익 증진과 보행환경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전북자치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도 707호(서외~신흥) 2차선 도로시설 개량사업은 부안읍과 부안스포츠파크 연결해 지역주민 및 탐방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시설이 빠른 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도로공항철도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2025 탄소중립포인트제 신규 가입자 모집

고창군이 '2050탄소중립, 기후 변화 위기 대응'을 목표로 2050년 탄소중립포인트제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란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이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실가스 실천 감축 제도다. 지원분야는 에너지절감과 자동차운행거리 절감 두가지 방법으로 나뉘어 각각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에너지분야는 군민 모두를 대상으로 연중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의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절감 비율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한다.

에너지를 5%이상 감축 시 포인트가 부여되며 포인트당 2원 이내로 환산해 연간 최대 10만원을 지급한다.

자동차분야는 매년 2~3월 자동차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가입 후 소유한 차량번호판 및 주행 거리 계기판 사진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해 가입 전·후의 일일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고미숙 고창군 환경위생과장은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과 실천확대를 통한 환경개선이 현금이나 포인트로 환원되는 사업임을 알려 군민들의 가입률을 높이고, 더 많은 혜택을 받아 탄소중립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 로컬푸드, 설 특판 매출 7억6백만원…지역 경제 '활력'

부안군(권익현)은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부안 로컬푸드 설맞이 특판행사를 통해 군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에 기여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판행사는 3개 플랫폼(부안로컬푸드직매장, 행복장터, 온라인 쇼핑몰 '부안텃밭할매')에서 부안농산물 약 60여종의 설 선물세트와 농·축·수산물을 20~30% 할인 판매해 1만 9447명의 소비자가 혜택을 받았다.

특히 행사 기간 동안 부안쌀, 친환경 배, 동진감자 등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대표 상품으로 내세운 결과 총매출액은 7억 600만원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2억 7300만원, 행복장터 1900만원, 온라인 쇼핑몰 4억 14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설맞이 특판행사 대비 1억 2200만원 증가한 수치로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특판행사를 통해 군민들에게는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며 품질 좋은 우리 지역 농산물을 제공하고 생산자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등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종자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추진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종자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육성하는 종자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자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종자기업 실무 체험을 통해 농산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 민간육종연구단지 내 입주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운영한다.

사업내용 중 인턴십 프로그램은 민간육종연구단지 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해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10명 내외의 인턴 모집이 되면 오는 3월부터 종자산업 분야 기업에서 6개월 동안 실습을 하게된다.

위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젊은 인력 유출이 심각한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면서 그린바이오산업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 나갈 인재들을 양성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은 "국내 종자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관련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사랑장학재단, '꿈키움 진로 멘토링' 큰 호응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난 3일 지평선학당에서 지평선학당 출신 대학생들과 지역 중·고등학생들이 함께하는'꿈 키움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김제지평선학당 수강생 약 12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평선학당 출신 대학생 5명이 멘토로 참여해 후배들과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멘토들은 자신의 수험 생활과 대학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 방법, 입시 전략, 생활기록부 관리 등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내용을 공유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정성주 이사장은 "지평선 학당 출신 선배들이 들려주는 경험담을 통해 본인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고민해 보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이 꿈을 실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진로 선택 및 진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파크골프장 대폭 확충…27년까지 총 8곳 운영

고창군이 오는 2027년까지 5개의 파크골프장을 새로 지으면서 생활체육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고 4일 밝혔다.

고창군은 현재 고창읍스포츠타운 파크골프장(27홀, 9,000㎡), 고수 파크골프장 (9홀, 9,000㎡), 상하(9홀, 7,500㎡) 등 3곳의 파크골프장을 운영 중이다.

이어 올 상반기에는 공음면 서남부권역 파크골프장(18홀)과 성송면 파크골프장(9홀)이 잇따라 개장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월암 저류지 파크골프장(27홀)과 운곡 파크골프장(18홀) 등이 준비중이다.

월암 저류지 파크골프장(고창읍)은 총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7홀(면적: 50,000㎡)을 조성할 예정이다.

27홀과 넓은 면적이라는 환경에서 다양한 코스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오는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운곡 파크골프장(아산면)에는 총 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파크골프장 18홀(면적: 37,120㎡), 관리동, 주차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7년에는 흥덕면에 북부권 파크골프장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총 8개의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면서 군민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각종 대회유치 등 지역경제 활력에도 큰 도움이 기대되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2025년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회, 5월 열려

'지평선축제 방향성' 주제로 5월 중·하순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3일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상반기 대시민 토론주제로 '지평선축제의 방향성'에 대해 토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위원장 신광식)는 지난 2024년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회 말미에 설문을 통해 받은 시민들의 의견 10가지 주제에 대해서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열 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서 뜬구름 잡는 식의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주제보다 시정에 바로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토론회 주제를 정하자는데 의견이 모여, 올해 개최되는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평선축제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이전인 5월 중·하순 경에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오는 24일 토론위 임시회의를 개최, 실무부서로부터 그간 지평선축제 개최와 관련된 문제점과 향후 축제의 방향성 등 고민 중인 부분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지평선축제에서 시민의 의견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점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발제자 및 패널로 공모하거나 추천하고 토론회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남원,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 유치

7월 하순 일주일간 전국 4~6학년 청소년 약 1,000명 방문 예정
'제복공무원 자녀 캠프' 포함으로 공공기관 유치 연계, 지역경제 활력 효과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소방청이 주관하고 현대백화점, DB손해보험이 후원하는 '2025 대한민국 청소년 소방안전캠프'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2025년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청소년 약 1,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남원 유치는 경찰, 소방공무원 대상인 '제복공무원 자녀 캠프'를 포함하고 있는 본 캠프를 통해, 민선8기 핵심 프로젝트인 제2중앙경찰학교와 소방심신수련원 등 공공기관 유치 연계 기회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며 유치를 본격화했다.

이에 최경식 남원시장은 작년 7월 남원에서 개최된 '제12회 한국119청소년단 전국 안전캠프'를 계기로 전북소방본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시작했다. 소방청이 요구하는 5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남원의 지리산유스캠프와 전북자치도 119안전체험관 등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리산둘레길과 문화시설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전략적 접근과 발 빠른 대응을 통해 캠프 유치에 성공했다.

특히 소방청, 후원 기업과 협의를 통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남원시 자체예산 투입 거의 없이 현대백화점 약 1억원과 DB손해보험 약 3억원 등 기업 지원을 그대로 이어받아 개최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의류, 간식차 등 물적 지원과 함께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며 대대적 홍보도 병행해 캠프의 질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캠프 참가자들은 △"지리산에서 살아남기" △"광한루 안전 탐방" △"춘향이와 함께하는 안전 탐방" 등 다양한 안전 교육과 체험 활동을 통해 재난 대응 능력을 배우게 된다. 특히, '지리산에서 살아남기' 코스에서는 생존 훈련을 통해 참가자들이 실제 상황에서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광한루 안전 탐방'에서는 생활 속 안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캠프 기간 동안 소방청 관계자들과 참가자들, 가족들이 남원시에 체류하며 숙식할 예정이며, 특히 2기 캠프 참가자들은 부모가 자녀의 입·퇴소를 진행하고 일부는 지역에 체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남원시는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캠프 후 제복공무원 자녀 등 참가자들이 남원시를 기억하고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지역 홍보 및 공공기관 유치와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관내 3천여개 사업체 통계조사 시행

'2025년 전국 사업체조사' 실시…정책 수립·예산편성 위해

순창군이 오는 7일부터 3월 4일까지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사업체조사'를 본격 실시한다. 통계청이 주관하는 이번 조사는 전국 모든 사업체의 분포와 고용 현황을 분석해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에 활용하기 위한 국가 통계조사다.

순창군 조사 대상은 관내 모든 사업체 약 3,172개이며, 주요 조사 항목은 사업체명·대표자·소재지·종사자 수 등 9개 항목이다. 조사는 사전 교육을 받은 6명의 조사 요원이 현장 방문조사로 진행되며, 여건에 따라 전화조사 등의 비대면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사된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내용검토 과정을 거쳐 산업별·종사자 규모별·조직형태별·지역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등을 집계한다. 최종 결과는 올해 12월 확정 공표될 예정이다.

/순창=박지헌 기자

순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발대 봄철 산불방지 상황실 운영

순창군은 지난 3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산불감시원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봄철 산불예방 활동에 나섰다.

이날 발대식에는 염기남 부군수를 비롯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관계 공무원 등 140명이 참석해 2025년 봄철 산불예방 교육 등을 실시했다.

군은 이달 1일부터 5월 16일까지 군청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산불방지 상황실을 운영하고, 산불예방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특히,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2명과 산불감시원 64명을 산불 취약 지역에 집중 배치해 산불 감시, 예방 홍보,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 작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 인접 지역의 인화물질 제거 사업을 추진해 봄철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아울러, 무량산, 백방산, 장군봉, 깃대봉 등 군내 주요 정상 14개소에 산불감시 초소를 운영하고, 아미산, 무이산, 무량산, 대산 뒷산, 장군봉, 백방산 등 6개소에는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산불을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순창=박지헌 기자

순창군, 챌린저(U-12) 주니어 테니스 대회 개최

일일 최대 600명 체류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군, 온열 기구·어묵탕 등 제공

스포츠마케팅의 메카 순창군이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2025 순창 챌린저(U-12) 주니어 테니스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며 뜨거운 스포츠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초등테니스연맹(회장 라귀현)이 주최·주관하고 순창군과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유소년 테니스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선수들의 축제로,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순창군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참가 자격은 12세 이하의 주니어 테니스 선수이며, 경기는 연령에 따라 새싹부·10세부·12세부 등 3개 리그로 나누어 남녀 단식과 복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군은 이번 대회가 겨울철에 치러지는 만큼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온열 기구를 경기장 곳곳에 배치하고 참가자들에게 어묵탕, 핫팩 등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칠 예정이다.

순창군이 스포츠대회 유치를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 유소년들이 참가하는 대회를 중점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선수단뿐만 아니라 학부모 등 응원단의 방문이 추가로 이어져 단기 체류 인구를 크게 증가시키고,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회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치러지는 대회로, 체류인원은 일일 최대 600여 명, 총인원은 3,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지역 상권의 매출 향상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순창=박지헌 기자

'스포츠마케팅 메카' 순창군이 2025 순창 챌린저 (U-12) 주니어 테니스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해 오는 7일부터 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한다.

완주 용진읍 노인일자리 발대식…'활기찬 노후'

완주군 용진읍이 용진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2025년 노인일자리 발대식을 개최하며 어르신들에게 희망찬 출발을 알렸다.

4일 열린 행사에서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 도의원, 군의원, 주요 기관단체장, 일자리 참여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발대식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어르신들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130명은 관내 환경정비, 쓰레기 분리수거 등 공익활동형으로 올해 12월까지 일자리를 제공받으며, 월 30시간 활동으로 29만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완주=김명곤 기자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신규 직원 공개 채용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원장 이영철)은 오늘부터 오는 12일까지 7일간 9명의 연구원 직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은 남원시 출연기관으로, 곤충산업과 천연물 소재개발 및 기업지원 등 바이오산업 소재원료 연구를 통해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기관이다.

이번 모집 내용은 연구직 2명과 행정직 6명, 기술직 1명을 채용하며, 응시자격은 임용일 기준 만 60세 이하로, 지방공무원법상 채용·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응시원서는 이달 12일까지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인사담당자 앞으로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받는다.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은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18일 면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합격자는 3월 초에 임명할 예정이다.

기타 응시 자격이나 서류 등 채용 관련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및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www.nbn.re.kr), 행정안전부 클린아이(job.cleaneye.go.kr)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사매면 농촌중심지 공동시설 '매화언덕' 준공

지상 2층 연면적 1,552㎡ 조성, 카페·강당·회의실·건강관리 등 주민 화합·소통의 장

남원시는 지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사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결실로 '매화언덕' 준공식을 4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59억 예산이 투자돼 사매면 주민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환경 개선을 이루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사업의 주요 성과인 공동이용시설 '매화언덕'은 지상 2층의 연면적 1,552㎡로, 1층에는 카페, 강당, 코인빨래방, 2층에는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회의실이 마련돼 주민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러한 시설을 통해 주민 간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혼불문화나눔터의 조성으로 족구장과 황톳길이 마련돼 지역민들이 여가와 체육 활동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더불어 지역 경관 개선이 이루어져 마을 도로 정비와 조경수 식재로 더욱 쾌적한 마을 환경이 마련됐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는 4일 지난 2018년에 농식품부 공모 선정됐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결실인 '매화언덕'의 준공식을 열었다.

남원공공도서관, 어린이 '책 100권 읽기 도전' 운영

남원시공공도서관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책 읽기의 즐거움과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출발 책 읽기 도전 100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가 스스로 선정한 그림책 80권과 사서가 추천한 그림책 20권을 모두 읽으면 목표를 달성함으로, 어린이들에게 성취감 및 자기 주도적 독서 습관을 기르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도서관 회원 중 2017년~2021년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 어린이에게는 독서 통장을 제공하고, 책을 읽을 때마다 독서 통장에 적어 최종 100권까지 채우도록 한다. 선착순 유아 40명, 아동 40명 총 80명에게 독서 통장을 완성하면 인증서와 메달을 수여한다.

신청은 방문 접수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참여 방법은 남원시 공공도서관 누리집(https://www.namwon.go.kr/lib) 공지 사항을 확인하거나 어울림(063-620-7788), 시립(063-620-8978), 어린이청소년도서관(063-620-5290)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소방서, 지난해 구급 출동 전년 대비 9.6% 증가

완주소방서(서장 이주상)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11,958건의 구급 출동을 수행했다.

이는 전년 대비 9.6% 증가한 수치이다. 같은 기간 이송 건수는 5,863건으로 3.6% 증가했으며, 이송 인원도 5,946명으로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소방서는 출동 건수가 증가한 원인으로 △고령 인구 증가 △질병 환자의 지속적 증가 △응급 상황 대응 필요성 확대 등을 꼽았다. 또한, 요양원에서의 출동 증가도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며, 고령화 사회에 따른 응급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주상 서장은 "구급 출동이 증가한 만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력 및 장비 운용을 최적화하고 있다"며 "특히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구급대원의 전문 교육과 현장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응급 상황 발생 시 119 신고 요령을 숙지하고, 구급차의 원활한 출동을 위해 길 터주기 및 신속한 신고 협조를 당부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청년취업준비생 면접정장 무료 대여 운영

완주군이 청년취업준비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한다.

완주군에 주소지를 두었거나 완주군에 취업하고자 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정장을 포함해 구두, 넥타이, 벨트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신청은 '청년메카완주(youth.wanju.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후 승인이 완료되면 정장 대여업체를 방문해 정장을 받을 수 있다.

대여 기간은 3박4일로 1인당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송미경 경제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하는 맞춤형 정책을 펼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 봉동 둔산공원서 정월대보름 민속 축제 개최

완주문화재단,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가 오는 8일 완주군 봉동읍 둔산공원에서 정월대보름을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완주문화재단과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가 주최, 주관하는 것으로 정월대보름의 정체성을 되살리고, 민속놀이를 재해석하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LED 장비를 활용한 쥐불놀이, 팽이 만들기, 연 만들기, 전통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공연·체험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이다.

정철우 완주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정월대보름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하고 즐기며 지역의 문화와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장수군, 14일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소유자로, 비주택의 경우 지난해까지 창고와 축사만 지원하던 것에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 시설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비용은 주택의 경우 1동당 352만원(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전액), 비주택의 경우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철거·처리 비용이 지원 한도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자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해당 사업은 군에서 직접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선정해 진행하며 신청자가 공사업자를 선정해 슬레이트를 처리한 후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권복순 환경과장은 "건축물 지붕 등에 사용된 슬레이트가 노후화되면서 석면 비산먼지가 발생해 군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군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 사업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 국도·국지도 건설 예타 반영

국도26호선 도로 개량사업, 국토부 예타대상 선정…숙원사업 추진 청신호

장수군 천천면과 진안군 진안읍을 연결하는 2차선인 국도26호선 구간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로 선정되며 주민 숙원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장수군 천천면과 진안군 진안읍을 연결하는 2차선인 국도26호선 구간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로 선정되며 주민 숙원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장수군은 4일 국도26호선(장수 천천~진안 진안) 도로 개량사업이 국토교통부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2026~2030)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도26호선 장수 천천~진안 진안간 도로개량사업은 현재 급커브와 급경사 등 선형불량 구간이 많아 안전성이 크게 떨어지는 2차선 도로다.

주민 및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시급히 진행돼야 할 사업으로 총사업비 817억원을 들여 11.0㎞ 구간의 도로를 개량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국도26호선 예타 대상 선정으로 수십년간 이어져 온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평가 항목을 철저히 분석해 최종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사업은 군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방문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을 구축하는데 정말 중요한 사업이다"며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공을 들인 만큼 전북특별자치도, 관계부처, 지역 국회의원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 건설계획(2026~2030)은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최종 사업 선정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2억원 확보

도내 최대 예산…능형철조망 설치 등 본격 지원 나서

임실군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에도 도내 최대 예산을 확보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군은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예산으로는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약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 규모는 능형철조망 설치 금액의 60%로, 일반 농가는 최대 282만원(150m), 과수농가는 최대 564만원(300m)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경작지가 소재하고 있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이달 17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3월 중 지원 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수확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능형철조망 설치 시설 지원과 적극적인 피해방지단 활동을 통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농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군, 신품종 가루쌀 활용 다양한 실습 교육 추진

임실군이 군민을 대상으로 우리 쌀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과 다양한 실습 교육으로 쌀 소비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11일부터 3월 26일까지 2개의 과정으로 각 20명씩 총 40명을 모집하고 과정별 5회씩 총 10회의 교육으로 진행된다.

임실군농산물가공센터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가루쌀을 이용한 야채 쌀 케익, 치즈구움떡, 쌀모찌, 백미주악 등 우리 쌀을 활용한 다양한 디저트를 만들 수 있는 교육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은 농산물가공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이메일(ck2490@korea.kr)로 오는 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40명을 모집한다.

특히, 가루쌀(바로미2)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신품종으로 쌀 품종의 특성이 물에 불리지 않은 상태로 건식 제분이 가능해 조리 시간이 단축되고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전분 구조를 지니고 있어 많은 가공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

심 민 군수는 "우리 쌀을 활용한 식문화 교육은 과잉 공급되고 있는 쌀의 여러 가능성을 파악하고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눈길'

취약계층 대상 가스안전장치 등 설치 지원…냉·난비 부담 해소 및 탄소 절감 효과 커

무주군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지원 및 ▲LPG용기 사용 가구의 시설개선, ▲보일러 점검 및 수리, ▲LED 조명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

고령자와 장애인, 저소득층 가구 등 지역 내 3백여 가구를 비롯해 복지시설 4곳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8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무주군에 따르면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해 주는 안전장치로 과다한 가스 사용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가스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 사업은 오래돼서 열화하기 쉬운 고무 재질의 가스 배관을 금속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일러 점검과 수리를 포함하는 에너지홈닥터와 LED조명 교체 역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군민 안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임채영 과장은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성을 쏟고 있다"라며 "더 나아가 무주읍과 무풍면, 설천면 지역 203세대에 태양광을 비롯한 태양열과 지열 등의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해 탄소 절감은 물론, 냉·난방비 부담을 해소하는 등 에너지 복지 실현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지난 2021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을 추진 중('21년 무주읍 278곳, '22년 무풍·설천면 155곳, '23년 적상·안성·부남면 375곳)으로, 올해도 20여억 원을 투입해 169세대에 태양광 설비를, 4세대에 태양열 설비를, 30세대에 지열 설비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제18회 진안군마을축제, 2025년 축제 시작 알려

올해 18회를 맞이하는 진안군마을축제를 위해 축제조직위원회는 4일 진안읍 은천마을에서 2025년도 마을축제의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은천마을은 매년 거북제를 지내며 마을의 평안과 건강을 비는 전통을 행하고 있다.

이날은 거북제뿐만 아니라 주민 전체가 참여해 입춘대길 원목 현판 만들기와 수제 레몬청 만들기 체험을 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진안군 마을축제는 이후 오는 12일 마령면 원평지마을과 부귀면 장승마을에서 정월대보름을 테마로, 28일에는 부귀면 우정마을에서 당산나무 산신제 등 마을의 원주민과 귀농·귀촌인들이 모여 한뜻으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다양한 체험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인석 진안군마을축제 조직위원장은 "마을축제로 인해 마을마다의 이야기가 저마다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는 마을 축제를 통한 도농교류 뿐만 아니라 축제 참여 마을간 교류 및 소통에도 중점을 둬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 진안읍 외사양마을, 전 조합원 자치연금 지급

진안군 진안읍 외사양마을이 군 최초로 마을 조합원 모두에게 매달 마을 자치연금을 지급하는 특별한 도전에 나섰다.

4일 진안군에 따르면 외사양마을은 외사양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지난 1월부터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수익금을 활용해 조합원 38명 전원에게 매달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외사양영농조합법인은 마을 총 39세대 중 법인 가입을 희망한 55세대의 세대별 대표 1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자치연금 지급 방식은 기존 일부 연령층이나 소득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타 지역의 마을 연금제도와 차별화된다.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덕분에 마을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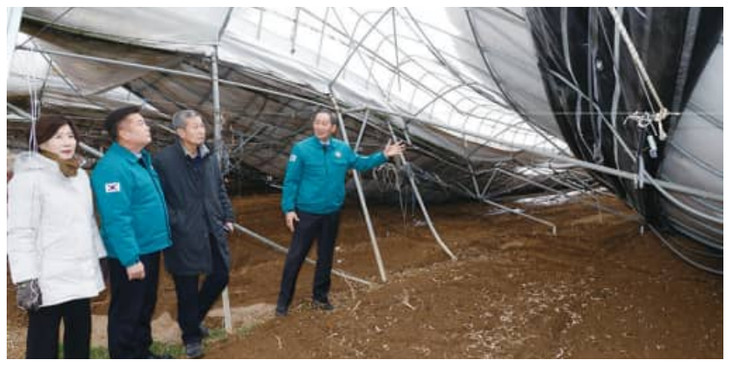
외사양마을은 2015년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육성사업 공모 선정 이후 2019년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되며 마이산을 중심으로 체험 프로그램과 숙박시설 등을 운영해 마을 경제의 자립 기반을 다져왔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에서 체험·숙박·음식 부문 모두 1등급을 획득하며 2025년 '으뜸촌'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마을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외사양마을의 자치연금 지급은 마을의 자립과 상생을 기반으로 한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며 "지속적인 공동체사업을 통해 더 많은 농촌마을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의회, 폭설 피해 현장 방문해 "복구 지원 총력"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는 지난달 31일 폭설로 농업시설 피해가 발생한 임실군 관내 주요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설 명절 연휴 기간인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 특히, 임실군은 평균 적설량은 28.2cm를 기록했으며, 최고 42.5cm의 적설량을 기록해 축사와 비닐하우스가 붕괴되는 시설피해가 발생했다.

주요 피해시설은 우사 및 퇴비사, 연동하우스이며 지붕이 붕괴돼 막대한 피해를 보고 농업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군의회는 이번 폭설로 인한 추가적인 시설물 피해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집행부 관련 부서와 협력해 피해 농가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민원과 찾아 친절교육 실시 및 직원 격려

장수군은 지난 3일 최훈식 군수가 민원과를 찾아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친절교육에서는 방문 민원 및 전화응대 요령, 실제 민원 사례를 공유하며 단순한 응대 기술을 넘어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대응하는 방법들을 중점으로 다뤄 직원들이 더욱 향상된 민원 응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수군은 민원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 개선, 직원 친절교육 실시, 디지털 민원 시스템 강화 등의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군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민원 담당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추진

임실군이 주요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계의 임대료를 올해 말까지 50% 감면 연장한다.

군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농기계임대사업소 4개소에서 운용 중인 임대 농업기계 22종 810여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 운영해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평을 얻었다.

임대 농업기계는 임실군 농업인 및 임실군에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감면 적용 대상이다.

평가는 전국 147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인력 및 조직, 사업성과, 임대료, 정부정책사업 참여 등 20개의 항목으로 구분돼 진행됐다.

군은 평가 항목 20개 중 15개의 항목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농촌진흥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군은 수상으로 확보한 사업비(국비) 1억원 등을 포함해 각종 사업과 안전교육을 적극 추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 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올해의 책 추천 받아…독서 분위기 확산 기대

무주군이 지역 내 '독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친구야, 함께 책 읽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친구야, 함께 책 읽자!'는 올해의 책을 함께 선정해 읽고 소통하는 기회의 장을 열겠다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오는 14일까지 무주상상반디숲 누리집 형설지공 도서관 바로가기와 직접 방문을 통해 추천을 받는다.

'올해의 책(3권)'은 추천 기준에 따라 접수된 책 중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와 군민 투표를 거쳐선정된다.

무주군청 태권문화과 도서관팀 송순호 팀장은 "책이 선정되면 독후감 공모전을 비롯한 북콘서트와 독서릴레이, 올해의 책 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군민이 추천하고 선정해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게 될 '친구야 함께 책 읽자 프로그램'이 지역의 독서 분위기를 만들고 건전하고 지속적인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2월 5일 수요일

군산 흥천사, 150만원 상당 백미 10kg 50포 기탁

군산 흥천사(주지 법운스님)가 올해도 이웃을 위한 사랑의 백미를 해신동에 전달했다.

지난 3일 해신동복지센터는 백미(10kg) 50포(150만원 상당)를 흥천사에 기탁받았다고 전달했다.

흥천사는 군산의 대표적인 사찰로 수년 동안 나눔을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다.

법운 주지스님은 "새해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라며, 2025년에는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한해를 보내길 기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미영 해신동장은 "잊지 않고 매년 쌀을 기탁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라며"기탁받은 백미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북도립미술관서 펼쳐지는 이건희 컬렉션, 이번 주말 막 내려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이건희 컬렉션 한국근현대미술 특별전: 선물' 이 이번 주말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2022년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많은 관심을 받은 이 특별전은 전북에서 대장정의 마무리를 장식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유영국, 나혜석, 장욱진 등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 139점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군산에서 활동했던 황종하의 '맹호'는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중 처음 공개된 작품으로 눈길을 끌었다.

전시는 5개 전시실로 구성됐으며, 이중섭의 대표 작품 '오줌싸는 아이', 나혜석의 '자화상', 김환기·박수근의 작품 등 각 시대를 대표하는 명작이 전시 중이다. 또한, 전북 연고 작가들의 작품도 소개됐으며,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소장 엽서를 통해 이응노의 전주 시기도 조명했다.

매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전 예약 또는 현장 접수로 관람 가능한 특별전의 관람료는 무료이며, 이달 9일까지 관람 가능하다.

/김은지 기자

진안읍 얼굴 없는 천사, 15년간 쌀 기부 '선행'

165만원 상당 쌀 10kg, 60포·메모 남겨…"매년 마음까지 따뜻해져"

15년간 쌀을 기부해온 '진안읍 얼굴 없는 천사'의 따뜻한 손길이 올해도 이어졌다.

익명의 기부자가 진안읍 행정복지센터에 쌀 10kg, 60포(165만원 상당)를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고 전달한 것.

기부자는 15년간 쌀 포대와 메모만 남기며 선행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도 진안읍 행정복지센터에 쌀을 보내왔다.

이에 진안읍은 기부받은 쌀 60포를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60세대에 신속히 전달했다. 쌀을 받은 한 주민은 "매년 잊지 않고 도움을 주시는 분 덕분에 마음까지 따뜻해진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15년간 쌀을 기부해온 '진안읍 얼굴 없는 천사'의 따뜻한 손길이 올해도 이어졌다.

정상식 진안읍장은 "올해도 잊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주신 익명의 기부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최경식 남원시장, '긍정양육' 릴레이 캠페인 동참

아동학대 예방 및 긍정양육 문화 확산…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앞장

4일 최경식 남원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적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긍정양육'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긍정양육'이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부모와 자녀 간 상호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육 방법으로 ▲자녀 알기 ▲관점 바꾸기 ▲경청하고 공감하기 ▲함께 키우기 등 9개의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5월 가정의 달을 계기로 긍정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아동은 우리의 미래이며, 그들의 안전과 행복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긍정양육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익산시 쏠티어린이집 원생들, 가득 찬 저금통 기부

익산시는 쏠티어린이집(원장 조평대)의 어린이들이 따듯한 마음으로 가득 찬 저금통을 모현도서관에 기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정헌율 익산시장을 비롯해 쏠티어린집 조평대 원장과 원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을 앞두고 있는 수도산 그림책숲도서관에서 저금통 기증식이 진행됐다.

기증된 저금통은 40개로 쏠티어린이집 원생들이 그림책 한 권을 읽을 때마다 100원씩을 저금해 모은 것이다. 기부금은 수도산 그림책숲 도서관의 그림책 구입에 사용될 예정이다.

쏠티어린이집은 지난해에도 그림책을 읽으며 모은 저금통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어린이들이 나눔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니 감동을 받았다"며 "어린이들에게 더욱 풍요로운 독서 환경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NH농협 고창군지부, 가축방역 거점소독시설 방문

직원들 격려 및 방역용품·격려물품 전달

NH농협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미정)는 4일 고창군 가축방역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했다.

이미정 지부장은 방역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날 이미정 지부장은 고창군 흥덕면에 소재한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방역활동에 힘쓰고 있는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방역복(240벌)과 격려물품을 전달했다.

이미정 지부장은 "최근 AI 확산으로 인한 가축방역근무자들의 노고에 깊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농협도 각 지역에 구성된 공동방제단을 중심으로 방역활동과 축산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정읍 황토현농협-농가주부모임, 사랑의 떡국떡나눔행사 열어

정읍 황토현농협(조합장 유형기)이 농가주부모임(회장 손순임)과 함께 지난달 17일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떡국떡 나눔행사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형기 조합장과 손순임회장과 봉사단등 30여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떡국떡을 마련해 지역의 홀몸 어르신 가구를 직접 찾아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황토현농협 농가주부모임은 매년 설명절을 맞아 지역취약계층에게 떡국떡을 나눠주며 따뜻한 명절을 기원한다.

유형기조합장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사에 동참하는 희망드림봉사단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지역홀몸어르신이 조금이나마 외롭지 않은 설명절을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완주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본부, 동상면에 연탄 600장 배달

(사)따뜻한 완주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본부가 지난 3일 동상면 은천마을에 거주하는 난방취약 세대를 위해 연탄나눔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연탄나눔은 운동본부 동상지회 회원들과 동상면 은천마을 주민들 20여 명은 600장의 연탄을 직접 취약계층에게 배달했다.

백용기 동상지회장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무척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웃들에게 희망과 온기를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따뜻한완주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본부는 해마다 관내 난방취약계층을 위해 연탄을 전달하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김제시 가족센터, '2025년 가족경제 플래닝교육'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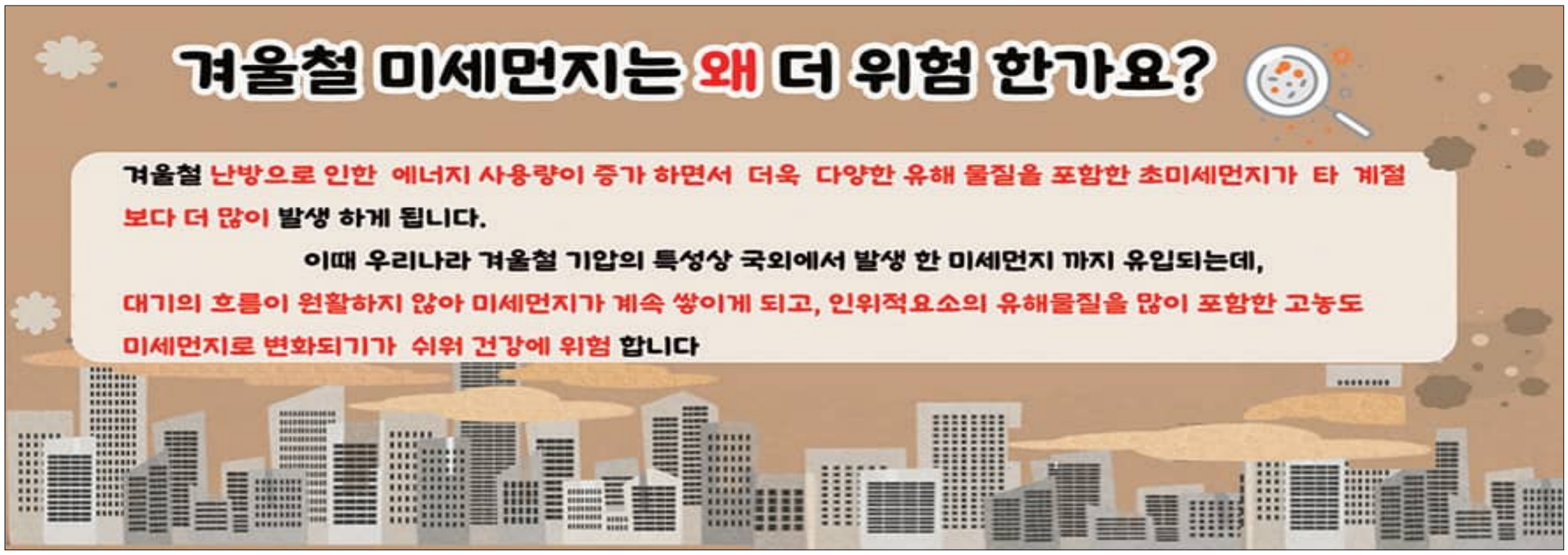
김제시가족센터(센터장 장덕상)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5년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5년 가족경제플래닝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경제 개념을 익히고 가족 경제 계획을 수립해 실천하는 '우리 가족 부자되기 프로젝트'로, 가족 단위의 경제적 자립과 미래 설계를 목표로 한다.

이번 교육은 전주대학교 전북경제지원센터에서 전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가족이 함께 경제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경제 이론 학습을 넘어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실천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자녀들에게 돈의 가치와 경제적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돕는다. 김제시가족센터 장덕상 센터장은 "가족이 함께 경제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가정이 경제적 자립의 첫걸음을 내딛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一事一言〉

극단주의가 서부지법 난동 불렀다(2)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강요 : 그렇지만 그는 이웃에게 자기 의견을 강요하지도 않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는다. 이 사람은 극단주의의 주요한 특징인 배타성과 광신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그를 극단주의자로 규정할 수는 없다. 즉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믿으면서 타인들을 배척하지만 자신의 믿음을 타인에게 강요하지는 않고 그럴 의향도 없다면 그는 극단주의자가 아니다. 반면에 광신적인 누군가가 타인(외부세계)을 배타적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타인에게 강요한다면, 그는 극단주의자다. 결론적으로 극단주의는 광신에 사로잡혀 세상을 배타적으로 대하며 자신의 믿음을 타인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한국의 극우세력은 배타성과 광신은 물론이고 그들의 음모론적 신념, 망상적 신념을 타인들, 사회에 강요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극단주의 집단이다. 극단주의로 가는 첫째 원인은 안전에 대한 위협이다. 안전에 대한 위협은 다음의 두 가지를 포함한다.

첫째, '실재적인' 위협. 실재적인 위협이란 정치적·경제적 권력 또는 신체적 안녕에 대한 위협을 의미한다. 외적의 침략으로 권력을 빼앗겨 식민지의 처지에 놓이는 것, 이민자의 급증으로 실업자가 되는 것, 경제 위기로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것, 인종 청소로 인해 목숨을 위협 당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상징적인' 혹은 '정신적인' 위협. 상징적인 위협이란 집단의 가치 체계, 신념 체계, 세계관 등에 대한 위협을 의미한다. 급격한 도시화 혹은 자본주의화로 인해 전통적인 농촌공동체의 가치 체계, 신념 체계, 세계관 등이 무너지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정신적인 위협에는 자존감 손상, 극심한 무력감, 고독감과 고립감, 삶의 의미 상실, 정체성 상실 같은 정신에 대한 위협이 포함된다.

오늘날 극단주의의 주요 원인인 안전에 대한 위협을 심각하게 증폭시키고 있는 사회적 조건은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개인 간, 집단 간 불평등을 심화하고 갈등과 혐오를 극대화한다. 그 결과 배타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극단주의가 심해지고 그것이 다시 갈등과 혐오를 고조시킨다. 불평등과 인간관계 악화로 인해 안전을 위협(특히 생존 위협) 당하고 인간관계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극단주의에 취약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극단주의가 기승을 부릴수록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다면, 그 집단은 극단주의를 방조, 묵인하거나 심한 경우 조장하고 부추기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 어떤 집단이 극단주의를 통해 이익을 보는 것일까? 우선 윤석열 정권처럼 극단주의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반국민적 극우 정치세력이다. 다음으로 광신적인 종교 집단이다. 광신적인 종교 집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면 신도를 구하기 힘들어져 교세가 위축될 것이므로 사회의 극단화를 반기고 나아가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돈독이 오른 사이비 종교 집단도 마찬가지다.

안타깝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는 극단주의를 묵인하거나 부추기는 사회적 조건이 성숙되어 있다. 한국을 70여 년 넘게 지배해 오고 있는 극우세력 자체가 극단주의 집단이고, 그들이 분할 통치와 차별 정책을 통해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혐오를 끊임없이 조장하고 부추겨온 결과 극단주의 경향은 지배층의 울타리를 넘어 전 사회적 범위로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돈독이 오른 사이비 종교 집단들까지 가세하면서 한국에서의 극단주의 경향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극단주의의 근본적 원인은 안전에 대한 위협이므로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극단주의를 예방하거나 퇴치할 수 없다.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개인 간 불평등과 계급 간 불평등을 해결함으로써 화목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극단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배타성이므로 화목한 사회는 극단주의와 대척점에 있다. 즉 사회가 화목하면 화목할수록 극단주의는 발을 붙일 수 없다.

한국의 경우 극단주의를 근절하려면 국가보안법 체제, 즉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평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배타성을 강요하는 국가보안법은 극단주의를 대표하는 악법이다. 이에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서 살아온 절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대북 문제, 이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극단주의적 입장을 갖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은 극우세력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어 적대시하는 '배타성', 극우적 이념이나 주장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믿음인 '광신', 전체 국민에 대한 극우적 신념과 체제의 '강요' 등 극단주의의 특징들을 골고루 갖고 있는 전형적인 극단주의 악법이다. 이것은 국가보안법 체제를 해체하고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발전은 물론이고 극단주의 예방과도 관련이 있는 중요한 과제임을 의미한다.

극단주의는 가혹한 처벌, 부분적인 교육개혁, 극단주의 예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예방하거나 근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극단주의의 진정한 예방과 근절은 한국 사회를 더 건강한 사회로, 더 살기 좋은 사회로 개혁하는 역사적 과업과 분리될 수 없다. 극단주의는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사회대개혁에 성공한다면 성공적으로 퇴치할 수 있을 것이다. 〈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

역두에서 / 문병란

누군가 보내야 할 그런 마음을 안고
이별은 사랑을 위하여
먼 별 같은 이야길 남겨야 했다.
수많은 얼굴들이 고운 발자국을 남기고
떠나간 자리에 바람이 머물면
핏빛 꽃들이 한 잎씩 지듯
그렇게 사랑은 총총히 떠나야 했다.

그대의 모습 숨겨진 계절의 뒤안길
아네모네의 꽃망울처럼 계절에 실려갔다
하늘 밖으로부터 아득히
그렇게 너는 다시 돌아와야만 했다.
손을 흔들면
울음이 영그는 손가락 끝에서
한 줄기 시그널로 사위어가는 그리움.

떠나간 사람으로 하여
시간은 별처럼 쌓이고
먼 행성에 실려간 사람은
한 밤중 잠들지 못하는 호수의 물무늬
비에 젖은 돌멩이 되어
그렇게 외로운 마음들이
다시 돌아와야 했다.

시인 약력 : 1935년 전남 화순 출생. 조선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김현승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에 시 '가로수', '밤의 호흡', '꽃밭' 등이 추천되어 등단했다. 1990년 만족작가회의 이사, 1996년 5·18기념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고 '원탁시' 동인으로 활동했다. 전남문학상(1979), 요산문학상(1985), 금호예술상(1996) 등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문병란시집'과 '죽순밭에서' 등이 있다.

사 설

기후테크산업은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후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친환경 기술 혁신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전북도가 기후테크 산업을 지역 혁신 성장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탄소중립 실현과 함께 녹색 기반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후테크 산업을 적극 육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전략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행보다.

기후테크는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목표로 하는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분야로는 클린테크(재생에너지), 카본테크(탄소포집), 에코테크(자원순환), 푸드테크(대체식품), 지오테크(우주기상) 등이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는 기후테크 시장이 2022~2032년 연평균 24.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북자치도가 기후테크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지역 경제와 산업 구조의 혁신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 중이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30조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국가이차전지특화단지로 선정된 배터리 산업 육성, 지속가능 모빌리티 분야와의 연계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전북도가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스타트업은 혁신 기술 개발과 빠른 시장 적응력을 바탕으로 기후테크산업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1조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경진대회 'SWITCH'를 통해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중견·대기업과의 협력 확대 및 오픈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 등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테크산업이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다. 우선,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기후테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인재 육성과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강화도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도 고려해야 한다. 기후테크는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한 산업인 만큼, 해외 유망 기업과의 협업, 기술 교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적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기회이자 미래 산업의 핵심 축이 될 것이다. 전북도가 기후테크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녹색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제는 실행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협력을 강화할 때다. 기후테크 기업들이 전북에 뿌리내리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후테크 산업이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길 기대한다.

문화재열전

선운사 백파율사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기록유산, 금석각류, 비
-지정일 - 1986년 9월 9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월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김제시, 스포츠마케팅으로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 전지훈련 최적지 · 체육시설 확충 ·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 추진으로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각종 대회 유치 시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연일 손님으로 만원사례를 이뤘고, 다양한 관광명소 등을 구경도 하면서 활발한 소비활동이 이뤄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제시에 새로운 경제활력을 불어넣었다.

시 스포츠마케팅 전략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하나는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유치이며, 다른 하나는 전지훈련 유치다. 이를 통해 작년 한 해 김제 방문객은 4만5천여명이며 경제적 효과는 43억원에 이른다.(경제적 산출근거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년 국민여행조사 보고서 여행지별 1회 평균 지출액)

지난해 괄목한 성과를 거둔 스포츠마케팅의 두 개의 축과 시가 추진하는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자.

▶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지난해 시는 열린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는 16건으로 2023년 7건보다 2배가 넘는 대회를 유치했다. 4월 제8회 전북특별자치도 축구협회장배 시군대항 축구대회와 처음으로 열린 2024 김제 지평선배 전국 공무원 야구대회, 5월 대한민국족구협회장기 시도대항 전국족구대회, 제43회 협회장기 전국남녀하키대회 및 제24회 협회장배 전국생활체육대회, 6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 전국게이트볼대회, 10월 공군참모총장배 민군 전국족구대회, 12월 제4회 한국초등연맹 우수선수 선발전 및 최강전 전국초등학교태권도대회에 이르기까지 11개의 다양한 종목의 대회가 개최됐다.

이 대회 기간 동안 4만명 정도의 선수와 방문객들이 김제를 찾아, 37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었다.

▶ 스포츠 관광도시, 전지훈련 최적지 김제시

시는 사계절이 따뜻한 온화한 기후와 IC 및 혁신도시 등와 인접해 있어 편리한 교통, 체육시설이 집적화되어 시간낭비없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전지훈련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하키, 야구, 태권도, 배드민턴 등 전국대회가 가능한 체육시설이 갖춰져 있어 매년 많은 선수들이 김제를 찾았다.

지난해는 4개 종목(야구, 태권도, 배드민턴, 하키) 25개 팀이 김제를 찾았다. 특히 1월 백송고 야구팀, 7월 청소년 태권도 국가태표팀, 8월 일본도쿄농업대학교 하키팀, 12월 꿈나무 태권도 국가대표팀이 방문하여 김제에서 뜨거운 땀방울을 흘리고 갔다.

전지훈련 유치로 5천6백여명의 선수 등이 방문하였고, 경제적 효과는 6억 원에 이른다.

▶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시설 확충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는 검산동 산59-1번지 일원에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4,783㎡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수영장 및 헬스장 등의 체육시설로 구성된다. 2019년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7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이며, 시비 122억원을 추가하여 총 사업비 1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5년 말을 목표로 추진중이다.남녀노소 전연령이 즐길 수 있는 수영장이 포함돼 시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견인하는 거점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테니스, 족구, 풋살, 론볼 등 다목적 체육공간으로 구성되는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은 지상 1층, 연면적 2,158m2 규모로 국비 15억원 포함 총 사업비 55억원을 투입해 2025년 상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특히, 부량면 용성리 일원에 조성되어 서부권 시민의 스포츠권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벽골제 문화관광시설과 연계해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훌륭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더불어 '김제시전지훈련센터'는 오는 2026년까지 도비 18억원을 포함하여 예산 50억원을 들여 지상 3층에 전체 건물 면적 1천200㎡규모로 건립되며 최대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체력단련실, 세탁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시설 저변 확대를 위한 체육시설들은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생활인구 증대 및 경제 활성화 기대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는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더욱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체류 인구가 증가하면 숙박업, 외식업, 관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는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화 재정확충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앞으로도 김제시가 더욱 다양하고 많은 종목들의 전국대회 유치와 스포츠팀들이 훈련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스포츠마케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